

## II. 지역정보하이라이트

### 중동, 아프리카 지역

#### ■ 국산 전력기자재 대오만 진출 전망 밝아

- 발전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수요도 폭발적
- 국산기자재 진출에도 큰 호기

#### □ 급성장하는 오만의 발전산업

- 오만의 발전산업이 최근 정부의 강력한 민영화 정책 및 산업화 정책추진으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자재 시장도 덩달아 가파른 상승세의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국내업체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망되고 있음.
- 지난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일 100MW 미만의 수준에 머물렀던 오만의 발전산업 수준은 지난 '95년 제조업 부문 GDP 비중을 '95년 4.7%에서 2020년 15%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의 제조산업 육성 경제청사진이 나온 이후 이듬해인 '96년에 일일 270MW에 이르는 MANA 발전소를 건립하는가 하면 '99년부터는 제 6차 국면을 거친 작업 끝에 일일 550MW의 Ghubrah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였음.
- 아울러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정부의 산업화 정책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2002년 및 2003년 연달아 도합 일일 912MW에 이르는 Al Khamil, Dofaha, Barka 등 3개의 발전소를 건설 현재 오만의 총 발전량은 약 1,832MW에 이르고 있음.

#### < 오만 발전 산업 현황 >

발전소명	발전용량(MW)	운영시기
Mana	270	1996
Ghubrah	550	1999
Barka	427	2002
Dhofar	200	2003
Al Khamil	285	2003
기타 소형 발전소	100	현재까지
소계	1,832	-

- 그러나 오만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는 2010년까지는 현 발전용량을 4300MW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음. 이미 금년초 소하르 담수 발전소 건설프로젝트를 민자로 발주한 바 있으며, 향후 소하르에 들어설 Aluminum Smelter 공장용으로도 약 일일 1000MW의 대용량의 발전프로젝트를 발주 현재 P.Q 단계에 와 있음.

**< 추진중 혹은 추진예정 발전프로젝트 >**

발전 프로젝트	추진용량	발주예상시기
Sohar IWPP	500	공사예정(두산수주)
Yibal Cative Power Plant I	100	P.Q 추진중
Yibal Cative Power Plant II	100	2005 년
Nimra Cative Power Plant I	100	2004 년말
Nimra Cative Power Plant II	100	2005 년
Aluminum Smelter IPP	1000	P.Q 추진중
Sharkiah IWPP	500	2007 년

**□ 전력기자재에 대한 수요도 팽창추세**

- 소하르 담수화 발전소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은 관련 기자재에 대해서도 폭발적인 수요를 창출시키고 있음. 이는 해당 프로젝트 자체 수요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기타 transmission 프로젝트들이 추가로 수반이 되기 때문임.
- 이와 관련된 현재 추진 예정중인 프로젝트나 향후 발주가 될 프로젝트만도 수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우선 조만간 공사가 시작될 프로젝트는 Sohar Power Transmission, Mabella 프로젝트가 있으며 연내 신규로 발주가 나올 프로젝트만도 금년 9 월초 발주 예정인 Sohar Port Substation, 금년 말경에 나올 Muttrah 132KV Substation, 2005 년 상반기에 나올 Adam 132KV Substation 등이 있음. 이외에도 매 6 개월마다 최소 1 개 이상의 132KV 혹은 220KV 관련 Subsation 건설 프로젝트가 발주가 될 것으로 오만 정부관계자가 밝히고 있음.
- 아울러 최근 추진되고 있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6 개국(오만, UAE, 사우디, 쿠웨이트, 바흐레인, 카타르)간 전력망 연결 구축작업의 한 일환인 Oman-UAE interconnection 프로젝트가 이미 추진이 되고 있어 이 또한 관련 기자재시장의 성장 촉진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국산 기자재 진출 호기**

- 이러한 전력시장의 급성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기자재의 오만 진출전력은 “현대”의 중전기와 일부 중소기업의 소형 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이는 오만을 포함한 GCC 지역 국가들이 사전에 검증된 제품 위주로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벤더등록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기 때문임.
- 따라서 금번 “두산”의 소하르 담수 발전소 건설프로젝트 수주(4 억불 상당)는 국산기자재의 오만 시장 진출에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임. 두산이 이 프로젝트에 가급적 국산기자재를 사용하고자 많은 관련 업체들을 프로젝트 벤더로 등록을 시키고 있기 때문임.
- 아울러 중전기부분에서는 현대와 효성이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최근 발주된 Mabella 프로젝트 등에서 컨설턴트에 의해 사전 승인을 받는 데 성공하는 등 국산 기자재에 대한 이미지는 갈수록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GIS(GI 스위치기어)나 132KV 이상의 변압기는 국산이 경쟁력이 있어 향후 발주가 될 관련 프로젝트에도 진출이 유망시 되고 있음.

- 기자재는 크게 프로젝트용과 수시로 발주가 되는 일상적인 유지·보수용 수요가 있는데, 주로 오만에서 수요가 크고 한국에서 공급 가능한 제품들의 각 유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특히 아래에 열거된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관련업체들은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프로젝트용 및 일상 유지보수용 소요 유망 국산 기자재 현황 >**

프로젝트용 국산공급가능 기자재	일상 유지.보수용 유망 국산기자재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Desalination plant, Evaporators, GT Generator 변압기(중압 및 고압), Switchgear(중압 및 고압), GI Switchgear, Black start Diesel Generator, DCS control System, Programmable Logic Control, Cables, A C motors, UPS & Battery Chargers, Pump 등	On Load disconnectors, Auto reclosers, Stay Insulators, Cables XLPE, Line post insulators, 각종 Transformers, Switchgears, Out door breakers, Drop out fuse, Feeder pillars 400/800/1600 A type, Cut out box, Shackle Insulators 등

(문의처 : 무스카트무역관 이관석 kotramct@omantel.net.om)